

# “긍정적 시너지 낼 수 있도록”

### 서거석 교육감, 3월 첫 전략회의 모두발언서 강조 “학생해외연수 사업도 꼼꼼히 챙길 것” 주문

“긍정적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정성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6일 전북도교육청 본청 간부공무원 및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이 참석한 3월 첫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서 교육감은 시무사에서 강조했던 ‘속도’, ‘현장중심’, ‘혁신’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앞으로 전북교육청의 모든 정책은 학교 현장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도교육청 각 부서는 물론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에서도 학교 현장지원을 위해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인해 업무가 많이 바뀌고, 새로운 부서가 생기면서 핑퐁 관행이 일부 드러난 것을 느꼈다”면서 “부서간 업무를 미루지 말고 협력해서 긍정적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학생해외연수 사업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줄 것을 주문했다.

서 교육감은 “현시점에서 학생해외연수가 왜 필요한지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면서 “학생 선발에 있어 무엇보다 공정성이 중요한 만큼 내실있고 안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거석 교육감 6일 전북도교육청 본청 간부공무원 및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이 참석한 3월 첫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편 올해 학생해외연수는 도교육청에서 1,480여 명, 지역교육청에서 1,140

여 명 등 총 2,6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 교육국제화 역량 ‘우수’

### 전북대, 교육부 인증대학에 선정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대학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IEQAS)’는 매력적인 유학 환경을 조성해 유학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성공적인 한국 유학생 생활 지원을 통해 우수한 지원(知財)·친한(親韓)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다.

이날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신규인증 평가에서 학위과정은 물론 어학연수과정까지 모든 평가지표를 충족하며 국제화 역량이 높은 대학임을 인정 받았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2028년 2월 까지 인증대학으로서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와, 대학원에 한해 외국인 유학생을 정원 제한 없이 선발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조희남 국제협력처장은 “이번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받은 것은 우리대학의 유학생 관리와 지원이 매우 체계적이고 우수하다는 것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정부의 교육개혁을 선도해 우수 외국인 유학생 5천명을 유치하고, 대한민국의 교육 강국 기틀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한일장신대 운동처방학과 학생들이 “전면수업거부”

### “학교 이사회, 비리은폐 등만 내세워... 교육부 개입을”

한일장신대학교 운동처방재활학과 학생 200여명이 전면수업거부를 선언했다. 모든 대학에서 입학사이 한창이 가운데 이 대학에서 초유의 등록거부, 수강신청거부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작년 12월 학교법인 한일신학이사회는 운동처방재활학과 교수 4명의 재임용을 모두 거부했다. 이럴 경우 이사회는 학사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아무 결정사항이 없는 교수 4명의 재임용을 부결했다고 했다. 현재 이 학과에는 교수 1명만이 남아 200명이 넘는 학생들과 20여 명의 대학원 석박사원생들의 강의와 학과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즉, 학과폐업상태인 것이다.

수업 거부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번 사건은 이사회와 학생 학습권 무시처사이며, 자신들의 권위만 내세워 임명권 남용으로 생긴 일”이라며 “운동처방재활학과 학생회 임원은 학과가 정상화 될 때까지 2023년 1학기 등록거부와 수강신청 거부 등 전면 수업거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임용에 탈락된 운동처방재활학과 교수 4명은 전국교수노조에 소속돼 이사들의 학내비리 은폐시도 및 내부장사 미조치에 대해 작년 10월 13일 교육부에 이사회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사회는 학사운영에 대한 대안 없이 교수노조 집행부가 학과교수 4명을 탈락시켰다는 입장이다.

운동처방재활학과 학생들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학교 이사회가 학생들의 수업권을 인종에도 없고 자신들의 비리은폐와 권위만 내세워 갈등만 키우고 있다”며, 교육부의 즉각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한편 한일장신대학교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운동처방재활학과 전면수업거부한다”며, 학사회편 주범 이사회에 대한 교육부의 즉각적인 개입 및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 전주대 ‘폼 미쳤다’ | 9일까지 신입생 대상 행사 개최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6일~9일 4일 간 신입생 대상 ‘전주대 폼 미쳤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신입생들의 대학 입학 축하와 환영의 의미를 담아 학습·취업·인턴·학생활동·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부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궁극적으로는 수퍼스타 인재 육성이라는 학생 성공 목표 달성을 위해 24개의 중앙동아리와 20여 개 부서(팀)가 참여해 신입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신입생들에게 대학 환경이 낯설고 적응하기 어렵기도 하고, 학교행사 또한 무겁고 재미없다는 인식이 있기에 이를 탈피하기 위해

최근 MZ세대 학생들이 선호하는 콘셉트로 행사를 구성. 다양한 기념품과 프로그램별 별도의 이벤트 진행 등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고자 했다.

행사를 주관한 학생취업처 이상행 처장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대학이 학생들의 성공을 위해 전해야 할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유관부서와 협력해 우리 학생들이 수퍼스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저탄소 채식의 날 시범학교 운영

### 선정될 시 주 1회 운영 기존 식단에 주2회 이상 채식 메뉴 추가로 제공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년 저탄소 채식의 날 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유류에 편중된 식생활로 비만·아토피·성조숙증·면역력 약화 등이 급증함에 따라 채식급식 운영으로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을 함양하고, 나이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명 존중 교육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도내 단설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학교들은 ‘저탄소 채식의 날’을 주 1회 운영하고 기존 식단에 주2회 이상 채식(과일) 메뉴를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특히 유류와 육가공품 및 인스턴트 식품 등 탄소배출이 많은 가공식품은 자체하고, 지역 식재료를 이용한 채식식단을 구성해 학생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학교 환경생태교육과 연계 운영된다.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등에 채식 급식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저탄소 채식급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개선을 위해 학생 체질개선 및 건강증진을 지원하겠다”면서 “우리 교육청은 채식급식은 물론 로컬 식재료 활용,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학교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주대 산업공학과, 2년 연속 우수과정 선정

### 산학프로젝트 등서 높은 점수

전주대학교 산업공학과는 취업 연계형 특성화 과정인 지능형기계부품사업(이충호 교수)이 2022년도 사업평가에서 ‘A’ 등급을 받으며, 2년 연속 우수 과정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북도가 후원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한다.

이에 따르면 평가 결과 산학프로젝트 운영과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참여학생들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 학연과정과의 취업연계 성과가 우수취업사례로 선정됐다. 또 IS웹트론 TYM, 세움 등 우수참여기업의 유치 및 건설기계부품연구원과 공동 운영중인 신뢰성 설계 검증 관리과정이 우수인턴 양성프로그램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한편 지능형기계부품 학사과정은 산업공학과 전문 전공교육과 더불어 특성화 3 Star 교육과정인 신뢰성 설계-검증-관리 전문과과정, 3D스캐닝 및 역설계 교육, 솔리드웍스, 리카디인 교육을 통한 CAx전문과과정, 파이썬 등을 통한 빅데이터와 데이터공학 전문과 과정의 취업 역량 강화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23년 2월에는 국외 현장학습으로 교세라와 시마즈제작용과 교토 대학 등에서 체험을 했다.

올해는 산업공학과 3학년을 대상으로 신규 학생을 선발 중이며, 기존 4학년 14명을 포함 25명에게 총 1억 3,500만원 상당의 등록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 국립군산대,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명예교수 추대

국립군산대학교는 6일 대학본부 총장직접실에서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및 명예교수 추대식을 열었다.

퇴직 교수는 국어국문과 공중구 교수, 역사철학부 박영철 교수,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이재완 교수, 식품생명과학부 구재근 교수, 행정경제학부 정근승 교수, 환경공학과 김득수 교수, 무역학과 임용택 교수, 건축해양건설융합공학부 최진호 교수, 수산생명의학과 조수근 교수, 환경공학과 윤종만 교수 등 10명이다.

이날 공중구 교수와 박영철 교수에게는 육조근정훈장, 이재완 교수에게는 금조근정장, 구재근 교수에게 대통령표창이 전수됐고, 퇴직 교수 모두 군산대학교 명예교수로 추대됐다.

/군산=이재훈 기자

## 우석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선정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가 교육부의 ‘2022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IEQAS)’에서 인증대학으로 선정,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국내 학생의 국제화 역량 제고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고등교육기관의 질 관리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교육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국제화 역량을 갖춘 대학을 인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르면 우석대는 이번 인증에서 △전담 및 선발 △유학생 지원 △유학생 관리 및 성과 등의 평가 항목을 충족해 올해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3년간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

인증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정부 초청 장학생

수학 대학 선정 시 가점 부여 △해외 한국 유학생협회 개최 시 참여 우대 △외국인 유학생 선발 자율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남천현 총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대학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국제교류원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